

반려동물 사랑 스타들 파양 의혹 '시끌'

유기된 반려동물 입양으로 이미지 구축 그 후엔? 박은석·지드레곤·유노윤호 의혹 이어 송희준은 사과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시대, 스타들의 반려동물도 스타들 못지 않게 팬들의 주목을 받는다. 최근에는 '뺨살'에서 데려오기 보다는 유기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로 인식되면서 스타들도 반려견이나 반려묘 입양으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한 사례가 많다. 하지만 반대로 파양 의혹이 일면 견갑을 수 없이 논란에 휘말리기도 한다. SBS TV 드라마 '펜트하우스'로 주목받은 배우 박은석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반려동물 파양 의혹이 일자 초반에는 소속사를 통해 "지인이 잘 키우고 있다"고 부인했다가 누리꾼들이 그 자체가 파양이라고 지적하자 결국 사과했다. 박은석은 예능에서 공개했던 강아지와 고양이 외에도 사슴접종으로 반려동물을 파양했다는 의혹에 직면했다. 박은석은 결국 "한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것은 잘못된 일이 맞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K팝 스타도 논란을 비껴가지 못했다. 빅뱅 지드레곤과 동반신기 유노윤호가 타깃이 됐다. 지드레곤의 경우 과거 방송에도 함께 출연했던 반려견들이 현재 그의 부모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지내고 있지만 관리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펜션측은 관리 후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지드레곤 측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유노윤호도 반려견 파양 의혹이 불거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노윤호가 강아지를 입양 1년 만에 훈련소에 보내고 12년째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유노윤호는 과거 방송에서 "처음에는

책임지지 못한 것은 잘못된 일이 맞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K팝 스타도 논란을 비껴가지 못했다. 빅뱅 지드레곤과 동반신기 유노윤호가 타깃이 됐다. 지드레곤의 경우 과거 방송에도 함께 출연했던 반려견들이 현재 그의 부모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지내고 있지만 관리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펜션측은 관리 후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지드레곤 측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유노윤호도 반려견 파양 의혹이 불거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노윤호가 강아지를 입양 1년 만에 훈련소에 보내고 12년째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유노윤호는 과거 방송에서 "처음에는



송희준의 인스타그램.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두 달 전쯤 마담과 벅을 공유하는 옆집에 어린 진돗개가 분양되어 왔습니다. 모네는 그 개의 기적이 느껴지지만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짹짹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밤도 먹지 않고 그나마 먹은 것은 토하기까지 했습니다. 병원에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진단해 주셨고 저는 이사가 방법이라고 생각해 새집을 구하는 동안 모네는 본가의 부모님이 맡아주기로 하셨습니다. 본가에서 모네는 다시 밥도 잘 먹고 침도 잘 자고 컨디션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암으로 투병중인 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습니다.

배우 송희준의 인스타그램. 연락뉴스

(입양견이) 감당이 됐지만, 점점 커지다 보니 사방에서 불만이 많이 들어와 학교에 보냈다"고 말할 바 있다. 29일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보견교사 안연진'에 출연해 눈도장을 찍은 배우 송희준이 반려견 파양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송희준은 앞서 유기견 '모네'를 입양하며 소셜미디어에 입양을 권유하는 글을 올려 호응을 얻었으나, 한 누리

꾼이 "작년에 입양 갔던 모네가 돌아왔다"고 폭로해 파양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송희준은 옆집에 진돗개가 오면서 모네가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짹짹, 이에 본가로 보냈지만 암 투병 중인 아버지의 상태가 안 좋아져 입양처에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연락뉴스



영화 '고질라 vs. 콩'.

연합뉴스

'고질라 vs. 콩' 정상... 주말 관객 반등

지상 최대 괴수가 격돌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29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초대형 액션 블록버스터 '고질라 vs. 콩'은 지난 주말 사흘(26~28일) 동안 28만 5000여 명(매출액 점유율 51.3%)의 관객을 끌어모으며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섰다. 워너브라더스의 '몬스터 버스'(몬스터 유니버스) 프로젝트 마지막 편인 이 영화는 거대 몬스터 고질라와 유인원의 왕 킵핑이 벌이는 빅 매치를 압도적인 스케일로 담아냈다.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열차편'이 8만7000여 명(15.4%)의 관객을 더하며 2위 자리를 지켰다. 지난 1월 개봉 이후 총

누적 관객은 148만명을 넘어섰다. 3주 동안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에 지켰던 아카데미 후보작 '미나리'는 3위로 몰락했다. 6만4000여 명(11.2%)의 관객을 더해 지난 3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은 81만7000여 명이다. 그들 엑스의 전업주 여운환 버스킹 로드 무비 '더 박스', 이다윗 주연의 저예산공포영화 '최면',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스파이의 아내'가 새로 개봉해 10위권 안에 들었다. 오렌만에 개봉한 블록버스터 영화 '몬스터 유니버스' 프로젝트 마지막 편인 이 영화는 거대 몬스터 고질라와 유인원의 왕 킵핑이 벌이는 빅 매치를 압도적인 스케일로 담아냈다.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열차편'이 8만7000여 명(15.4%)의 관객을 더하며 2위 자리를 지켰다. 지난 1월 개봉 이후 총



뮤지컬 '사랑의 불시착' 포스터. 연합뉴스

'사랑의 불시착' 뮤지컬로 재탄생

현빈·손예진 주연 드라마 뮤지컬화해 2022년 개막

현빈·손예진 주연의 인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뮤지컬로 재탄생한다. 제작사 팝뮤직과 T2N미디어는 지난해 인기리에 종영한 tvN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뮤지컬로 만들어 2022년 개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팝뮤직과 T2N미디어는 드라마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과 글로벌 판권 계약을 완료했다. 제작에 참여할 스태프와 배역 캐스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공연은 2022년 중반 서울에서 처음 막을 올리며, 장소를 옮겨 이어갈 예정이다. 김진석 팝뮤직 대표는 "원천 IP(지적재산)가 가진 인지도가 워낙에 큰 작품이라 이미 많은 배우와 해외 제작자들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

다"며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어느 날 돌풍과 함께 페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 윤세리(손예진)와 그를 지키다 사랑에 빠지게 된 북한군 장교 리정혁(현빈)의 러브 스토리다. 드라마는 최종회 최고 시청률 24.1%를 달성하며 tvN 드라마 역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해외에서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며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사랑의 불시착' 신드롬이 불 만큼 뜨거운 인기를 끌었다. 연합뉴스

송승헌·이하나 OCN '보이스4'로 호흡

OCN은 '보이스4: 심판의 시간' 주연으로 송승헌과 이하나가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보이스' 시리즈는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112 신고센터 대원들의 치열한 기록을 그린 스릴러극으로 이하나가 전 시즌에서 보이스트 프롭라일러 강권주를 연기해왔다. 남주인공은 시즌1 장혁, 시즌2·3

이진욱에 이어 시즌4는 송승헌이 맡는다. 그는 미국 LAPD(로스앤젤레스 경찰) 경 전담 팀장이자 골든타임 팀 협력 형사인 데릭조를 연기한다. 제작진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송승헌, 이하나의 새로운 골든타임 공조를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주말극으로 편성되며 총 14부작으로 오는 6월 방송. 연합뉴스

버벌진트 정규앨범 '변곡점'... 전곡 자작곡

래퍼 겸 프로듀서 버벌진트가 6년 만인 정규앨범을 들고 찾아온다. 소속사 아다사이드는 다음 달 8일 버벌진트가 정규 7집 '변곡점'을 발매한다고 29일 밝혔다. 2015년 발표한 '고 하드 파트1: 양가치' 이후 첫 정규앨범으로, 버벌진트가 전곡 작사·작곡·편곡했다. 총 14곡이 담긴 이번 앨범의 타이

틀곡은 '공인'이다. 흔히 쓰이는 공인(公人)이라는 말에 대한 통찰을 담아 가사를 썼으며 래퍼 스윙스가 피처링해 메시지에 힘을 더했다. '누명' 등 힘있게하며 명반으로 꼽히는 앨범을 다수 발표했으며, '좋아 보여', '충분히 예뻐', '이제 사랑이 아니면' 등 여러곡을 대중적으로 히트시키기도 했다. 연합뉴스

박수홍 "형의 출연료 횡령 사실..."

30년간 100억 단위 횡령 의혹 제기되자 직접 인정

고 소속사는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됐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수홍은 이어 "함께 방송하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자들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나의 본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걱정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실망 끼치지 않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박수홍은 최근 1인 기획사를 차려 유튜브 활동 중인데, 이 채널에 박수홍 친형과 형수의 횡령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갔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박수홍은 데뷔 초부터 친형에게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겼고, 출연료 등 자산 관리는 모두 형과 형수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박수홍은 29일 자신의 반려묘인 '다홍'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 소속사와의 문제 이전에 가족의 문제 이전에 최대한 조용히 상황을 매들 뿐이나 부부합의로 부득이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돼 글을 남기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본 건 사실"이라며 "그리

고 소속사는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됐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수홍은 이어 "함께 방송하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자들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나의 본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걱정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실망 끼치지 않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박수홍은 최근 1인 기획사를 차려 유튜브 활동 중인데, 이 채널에 박수홍 친형과 형수의 횡령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갔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박수홍은 데뷔 초부터 친형에게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겼고, 출연료 등 자산 관리는 모두 형과 형수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Table with TV schedules for KBS1, KBS2, MBC, JIBS/SBS, and EBS1. Columns include channel, time, and program name. Includes a '30 (화)' (Tuesday) highlight.

A horoscope section titled '오늘의 운세 30일'. It lists zodiac signs and their predicted fortunes for the day. Includes a photo of a fortune teller and contact information.